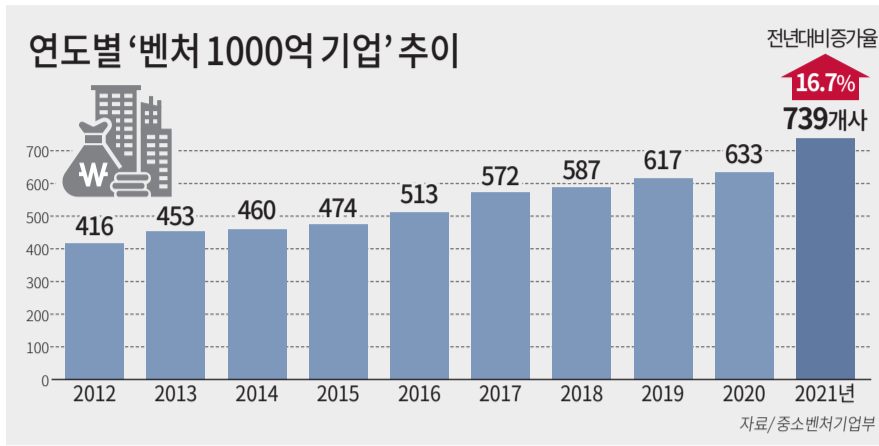


# 매출 1000억 넘긴 벤처기업 739곳... 총매출액 재계 3위

(2021년 기준)

중기부, 전년보다 106개사 증가  
총 고용인력 27만8067명 기록  
수출 기업수 전체의 78% 차지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이 2021년 기준 739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무려 106개사가 늘어난 것으로 연간 증가율로는 최근 10년내 가장 높았다. 이들 '벤처 1000억 기업'의 총 매출액은 188조원으로 삼성, 현대차에 이어 재계 3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발표한 '2021년도 벤처 1000억 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633개였던 매출 1000억원 초과 벤처기업은 지난해엔 16.7%가 늘어난 739개를 기록했다.

3년 연속으로 20% 이상 매출액 증가

율을 보인 기업을 뜻하는 '가젤형' 벤처 1000억원 기업도 전년도의 37개사에서 48개사로 11곳이 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한 벤처기업은 569개사로 집계됐다. 62곳은 1000억원 기업에서 빠졌다 다시 이름을 올렸다. 108개사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서다.

업종별로는 기계·자동차·금속이 전년 대비 33개사 늘어난 167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이 132개사, 섬유·비금속·기타제조가 120개사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739개 기업의 총 매출액은 18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51조원보다 22.5% 늘어난 액수다. 이들 1000억 원 기업을 1개 기업으로 볼때 매출액

(금융보험업제외) 기준 2021년 재계 순위는 삼성(311조원), 현대자동차(204조원)에 이어 3위다. 이외에 SK(169조원), LG(147조원), 포스코(88조원), 롯데(64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도엔 재계 4위였다.

아울러 1000억원 기업들이 고용한 인력은 27만8067명으로 전년의 24만2030명과 비교해 14.8%(3만6037억원) 증가했다. 종사자수 기준으론 삼성(26만7305명)보다도 많다.

수출 기업수는 전체(739개사)의 78%인 580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총 수출액은 39조원, 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680억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들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은 총 8만291건으로 국내 전체 산업재산권 59만2615건의 13.5%를 차지했다. 이는 기업당 평균 108.6개를 보유한 것으로 2020년 말 기준 104.6개보다 4.1% 증가했다.

벤처 1000억원 기업의 평균 업력은 25.6년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계·자동차·금속이 30.9년으로 가장 길었고, 소프트웨어개발·IT기반서비스업이 17.7년으로 가장 짧았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등 수도권이 전체의 61.2%인 452개사로 압도적이었다. 이외에 충청권(108개사), 경남권(84개사), 경북권(49개사)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매출 1조원이 넘는 기업은 2020년 17개사에서 4곳이 늘어 지난해엔 21개사를 기록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올해 처음으로 '벤처 1000억원' 명단에 오른 기업들을 격려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감사보고서와 나이스평가정보의 매출액 자료를 사용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CJ대한통운-SM상선, 미국 물류시장 공략

북미물류사업 확장 업무협약  
노하우 결합 시너지 극대화

CJ대한통운이 SM상선과 손잡고 미국 물류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CJ대한통운은 SM상선과 SM상선 본사에서 북미물류사업 확장을 위한 '리퍼 라운드 트립 서비스 및 트럭킹(Reefers Round-Trip & Trucking)'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리퍼 라운드 트립은 정기 해운노선을 왕복하는 선박에 냉동냉장컨테이너(Reefer Container)를 싣고 화물을 운송하는 해운 물류를 뜻한다. 트럭킹은 대형화물차를 활용한 내륙 운송 서비스를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각사가 보유한 육상·해운 운송역량과 노하우 등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북미물류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부산항과 미국서해안 항구를 왕복하는 해운 노선을 활용해 고객사(화주)에게 다양한 형태의 복합 물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온도조절이 가능한 냉동냉장컨테이너를 활용한 콜드체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냉동냉장컨테이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온도 유지가 가능해 신선식품과 의약품 등 온도 관리가 필수인 화물들의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북미 내륙 운송을 결합한 복합화물운송서비스도 강화한다.

특히 CJ대한통운 미국통합법인 CJ Logistics America(CJ 로지스틱스 아메리카)가 미국 현지에 보유한 운송역량과 네트워크를 연계해 항만에서부터 고객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SM상선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추후 태국, 베트남 등 추가적인 노선을 개발·발굴해 글로벌 물류사업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CJ대한통운 강병구 글로벌부문장은



CJ대한통운 강병구 글로벌부문장(오른쪽)이 SM상선 유조현 대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대한민국의 물류와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양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만큼 물류시너지 극대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통해 양사가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SK매직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SK매직이 '2022 굿디자인 어워드(GD)'에서 내추럴 모노크롬(Natural Monochrome)으로 동상인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21일 SK매직에 따르면 올해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터치온 프로 식기세척기 ▲에코미니 정수기 '그린41' ▲에코클린 음식물처리기 ▲올과워 인덕션 ▲내추럴 모노크롬의 디자인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특허청장상을 수상한 내추럴 모노크롬은 '생활 속 자연스러움'을 지향하는 SK매직의 차별화된 디자인 아이덴티티 전략으로 고객이 머무는 공간 속으로 가전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생활에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SK매직은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를 수상한 데 이어 국내 대표 디자인 어워드, 핀업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차지하기도 했다.

SK매직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과 차별화된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는 생활구독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기보, 감사원 심사 '우수기관' 선정

감사인프라 등 4개 분야 평가

기술보증기금이 감사원이 발표한 자체감사 활동 심사 결과에서 'A등급'을 받으며 우수기관에 뽑혔다.

21일 기보에 따르면 자체감사활동심사는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 등 66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 기관이 실시한 감사활동을 A~D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기보는 지난 1년간 ▲면책 제도 활성화 ▲소통 확대 등 적극 행정 지원 강화 ▲디지털 포렌식 감사 기법 도입 ▲비

대면·디지털 감사체계 고도화 등 혁신적 감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심사 모든 분야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669개 기관 중 최고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경제 위기·고금리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 면책 제도 확대 운영 ▲회של센터 운영 ▲AI 빅데이터 기반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등 내부 통제 역량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

기보 장세홍 감사는 “앞으로도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롯데글로벌로지스 친환경 물류용기 만든다

동남리얼라이즈와 협약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스타트업과 친환경 물류용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 17일 목재 신소재 개발 스타트업인 동남리얼라이즈와 '친환경 물류용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물류용기 사업'은 친환경 물류전환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소재·원료를 활용하 필레트, 물류박스 등을 개발해 물류현장에 도입하는 것이다. 동남리얼라이즈가 개발한 친환경 소

재인 CXP(Cellulose Cross-linked Polymer)는 임업부산물로 가공한 업사이클링 신소재다. CXP 목재는 기존 목재 대비 열가소성이 뛰어나 정밀한 성형가공과 대량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구성, 내후성이 뛰어나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목재 신소재인 CXP를 활용해 물류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물류용기를 공동 개발한다. 기존 플라스틱 필레트 1000개를 CXP 소재로 대체하면 약 45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6837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김승호 기자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수능영어 이의제기 192건... 불만속출 /사진 뉴스스  
▲ 남육, 대장동사업 "이재명 지분있다 들었다"

▲ 집주인 선순위 보증금·세금체납 정보요구 입법예고  
▲ 코트라 '올해의 SNS' 공기업 부문 수상



▲ 3분기 물가상승률 24년만에 최대 /사진 뉴스스  
▲ 인천공항 이용객 '일일 10만명' 넘었다... 코로나 이후 2년9개월만